

추모사

홍일식 고려대 총장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감사)

오늘은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선생께서 탄생하신지 107주년이 되는 생신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선생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지 않은 55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여하신 위대한 발자취를 살펴보고 추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 이처럼 탄신추모의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작년 12월 29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동아일보사 강당에서 선생의 서거 50주기 추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선생의 후학들 및 기념사업회 이사진이 논의한 결과, 선생이 돌아가신 기일을 중심으로 추념식을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제는 서거하신 지 반세기가 지났으므로 연말이라고 하는 춥고 바쁜 시기를 고집할 필요없이 앞으로는 마침 계절적으로 좋은 선생의 탄신일을 택하여 탄신추모행사를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 이 자리에서 선생의 탄신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 금년에는 선생이 문화체육부에 의하여 "이 달의 문화인물" 중의 한 분으로 선정되신 바 있으므로 오늘의 추모식이외에도 12월에는 광화문 일민문화관에서 유품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조망하는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많은 지도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 신음하던 36년 동안 선생이 민족의 선두에 서서 그 등불이 되고 대들보가 되시어 악전고투하신 일은 온 겨레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마는 선생은 사실 당신 한몸을 조국에 바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있던 1890년에 태어나신 선생은 19세의 청년으로 구국의 큰 뜻을 품고 일생의 동지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선생과 함께 일본유학의 길에 오르셨다가 불과 2년만에 나라를 잃는 국치(國恥)를 당하셨

으니 그때의 비통하셨던 선생의 심정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생께서 결연히 적극적 구국의 길을 택하신 것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의 비운과 함께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끊거나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신 의인열사의 거룩한 정신도 후세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소 굴욕과 절망과 무지와 빈곤속에 헤매는 겨레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모든 고난을 겨레와 함께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애국의 열혈이상으로 불굴의 투지와 인내와 그리고 원대한 경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3·1운동을 계획·조직하시고 동아일보의 총수로서 민족정신을 대변·고취하는 동안 누차의 옥고를 개의치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신 것은 선생께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나 다름없게 생각됩니다. 해방이 되자 중망(衆望)을 짊어지고 선생이 건국창업의 위대한 업무의 중심에 서시게 된 것은 사리의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강인한 투지와 원대한 포부를 펴볼 기회를 미처 잡기도 전에 폭도의 흉탄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 온 국민이 국운의 비색함과 비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선생이 가신지 이미 반세기가 더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겨레는 아직도 선생의 큰 뜻을 제대로 완전하게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반쪽 남녘에서나마 민주헌정과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은 다행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직도 국토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선생의 묘전에서 어려운 때를 당할 때마다 위대한 선각자를 한층 더 추모하는 충정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후학들은 선생께서 생전에 것처럼 사랑하시던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롭고 부강하여 세계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